

- 주요 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 정책 연속성 강조를 시사
 - 미국 정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설 전망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이 ECB 자산매입 연장의 근거로 불충분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를 19개월째 동결. 위험요인 방지가 중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 강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과 기술주 약세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상장 둔화 우려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 강화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전망 등이 주요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연동하며 4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91.4원, +5.4원) 0.5% 상승, 한국 CDS 보합

		11/22일	11/19일	전일대비			11/22일	11/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82.9	4,698.0	-0.32%	국채 금리 10y	미국	1.62%	1.55%	7bp
	유럽	485.46	486.08	-0.13%		독일	-0.30%	-0.34%	4bp
	중국	3,582.1	3,560.4	0.61%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774	29,746	0.09%		중국	48bp	49bp	-1bp
	한국	3,013.3	2,971.0	1.42%	위험 지표	EMBI+	-	380	-
환율	달러지수	96.51	96.03	0.50%		VIX	19.17	17.91	7.04%
	유로화	1.1237	1.1290	-0.47%		WTI유	76.75	76.10	0.85%
	엔화	114.88	113.99	-0.77%	원자재	구리	439.0	440.8	-0.40%
	위안화	6.3851	6.3871	0.03%		금	1,804.7	1,845.7	-2.23%
	원화	1,185.1	1,185.3	0.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 정책 연속성 강조를 시사

-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현 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 이는 기존 주요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브레이너드 이사는 부의장으로 지명.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경제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 법안 관련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당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파월 의장 지명은 합리적 선택. 또한 불필요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방지 가능. 파월 의장은 고용 확대와 과도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Moody's Analytics의 Mark Zandi는 느리지만 꾸준한 연준의 통화긴축을 전망. 이번 발표 이후 유로달러 선물시장은 2022년 3차례의 0.25%p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정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설 전망

- 바이든 정부는 해당 방법의 추진을 위해 일본, 인도, 한국 등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 규모를 3500만배럴로 추산. 하지만 OPEC+는 전략 비축유 방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

■ 미국의 조사기관, 연방정부는 부채상한 없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운영 가능

- Wrightson ICAP는 재무부 국채발행 계획을 분석하면, 엘런 장관이 제시한 12/15일 이후에도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

■ BofA, 내년 자산시장에서 금리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

-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금리인상 여파를 고려하여 변동성 지수, 원유, 에너지, 미국 달러화, 실물자산 등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권고. 다만 이번 의견은 위험자산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다수의 투자은행과 상이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이 ECB 자산매입 연장의 근거로 불충분

-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혹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에도 불구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은 예정대로 내년 3월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 ECB, 모든 역내 대형은행이 기후 리스크 목표 달성에 미흡

- ECB는 1년 전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위한 은행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은행 내 기후 리스크 관련 조직 운영 등은 양호했지만, 내부 보고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를 19개월째 동결. 위험요인 방지가 중요

- 1년 만기 LPR을 3.85%로 고시. 경기둔화 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생산자물가 급등, 부채비율 증가, 빈부격차 확대,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불안 요인을 진정시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석

■ 중국 감독당국, 일부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구

- 구체적으로 대출 허가건수와 대출 잔액 모두를 늘리도록 권고. 이번 조치는 부동산 업계의 자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 다만 공식적으로 감독당국은 신규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제공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 재무성에 따르면, 10월 정부의 토지매각 규모는 5737억위안으로 전년동월비 13.14% 감소.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출 제공, 부동산 부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업체들은 토지 매입에 신중한 모습

■ 홍콩 항셱, 중국 헝다그룹을 자사의 중국 기업지수(H지수) 산정에서 제외

- H지수에서 헝다그룹 대신 바이오제약사인 이노벤프바이오로직스를 새롭게 편입. 다만 헝다그룹의 제외 이유는 비공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기존주택판매(만건, 연환산): 634, 9월(629), 예상치(620)
- 미국 10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76, 9월(-0.18), 예상치(-)
-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지수: -6.80, 10월(-4.8), 예상치(-5.5)

■ 주요 경제 이벤트(11/23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하스켈 위원 강연, 미국 11월 마켓 종합 PMI,
- 미국 11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유로존 11월 마켓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부채 함정, 낮은 수준의 장기 금리 지속에 일조 - Financial Times

(There is no easy escape from the global debt trap)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에도 장기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제한적인 변동성만 보이는 상황. 이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자산매입, 물가상승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들을 설명하기에 여전히 부족
- 세계 경제가 대규모 부채 함정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지난 40년간 총부채는 3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GDP의 350% 수준에 도달.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
- 이에 투자자들은 대규모 부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큰 폭의 금리상승이 어렵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근거로 시장에서의 낮은 금리를 수용

■ 미국 경제, 과거 공급 부족은 곧 과잉으로 연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 - WSJ

(Today's Shortages Could Soon Become Tomorrow's Gluts)

- 미국은 공급병목과 수요 증가가 맞물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생산품의 경우 물가 상승폭이 현저. 현재 낮은 재고와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후반에는 진정될 가능성
- 이는 공급부족으로 부분 생산된 미완성 제품들이 부족했던 부품의 공급이 정상화되면 완제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 한편 과거에도 생산자는 가격 상승 시 생산을 확대했으며 향후 코로나 19 감염이 진정되면 공급병목 문제도 완화될 전망

■ 미국 회사채 시장,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 - 블룸버그

(Credit Markets Are Full of Alarms and No One Cares)

■ 연준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는 긴축노력 강화가 요구 - WSJ

(Jerome Powell Will Face a Very Different Economy in a Second Term)

■ 위험자산의 유동성 랠리, 실질금리 상승 가능성의 위험이 내재 - 블룸버그

(Peak Liquidity Portends Trouble for Risk Asset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